

인도의 경제 불평등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대표 권희재입니다. 저는 오늘 인도의 경제 불평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도의 경제 불평등은 세계에서 거의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인도적 지원 비정부기구인 옥스팜은 2021년 기준 인도 상위 1%가 인도 전체 부의 4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인도의 최고 자산가이자 2022년 블룸버그(Bloomberg) 선정 세계 억만장자 순위 2등을 차지한 기우나 (Gautam Adani)가 보유한 자산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고 인도의 최고 자산가 100명이 소유한 부는 6,600만 달러(한화 약 817조 1,658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카스트제도와 지역별 인프라 차이, 부자와 서민의 재산을 얻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스트제도는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없어졌고 인도 정부는 하층 카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에 공공 부문에서 하층 카스트 고용할 당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스트제도는 인도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책 '불확실한 영광'은 인도의 카스트 계급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는데 법원,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의 경우 고위직의 70%에서 100%가 상위 카스트 계급인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에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IT 기업의 채용 과정을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전문직 노동시장에는 카스트와 계급, 종교, 지역 등에 따라 뚜렷한 불평등과 간접적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하층 카스트들은 경제적 기회의 더욱 균등한 배분을 통해 더욱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민간 부문에도 정원을 할

당정책을 확대해서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민간 기업들은 직원 채용이나 승진, 임금 등에서 카스트에 따른 차별은 전혀 없으며, 정원 할당정책을 시행할 경우 실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서 생산성과 경쟁력이 약화하고 결국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논리로 강력히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대로 높은 카스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재산과 지위 등을 물려받고 하위 카스트 계급은 가난을 물려받아 실질적으론 카스트제는 없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심각한 불평등 사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지역별 인프라 차이도 심각합니다. 소수 인도의 대도시는 깨끗한 물, 좋은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수의 소도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터넷, 깨끗한 물, 병원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람들은 문명으로부터 분리되고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면 심각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일을 하러 나가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하고 성인들은 결혼할 때 받는 혼수를 통해 돈을 벌고 혼수가 성에 차지 않을 시 신랑이 신부에게 폭력을 행사해 심하면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상황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부자들의 재산을 얻는 과정의 차이 또한 원인입니다. 인도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 서민들은 월급을 받아 재산을 늘리지만, 부자는 투자하는 등 돈을 불리는 속도가 차이가 나 빈부격차가 심화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희 인도는 현재 심각한 경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인터넷, 병원 등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발달시키고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대도시와 비슷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하위 계급자와 상위 계급자와의 지식, 직장, 생활 수준등

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계급과 성 대한 차별과 사회에 남아있는 악습과 아동 노동 철폐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며 이 법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